

KIPO NEWS

특허청, 국가 R&D 연구단에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 제시

최근 국립대 법인화 등의 이슈가 제기됨에 따라 대학 스스로 차세대 먹거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특허청은 국가 R&D 연구단에 특허전략전문가*를 파견하여 대학의 새로운 수익창출을 위한 R&D 수행 모델을 제시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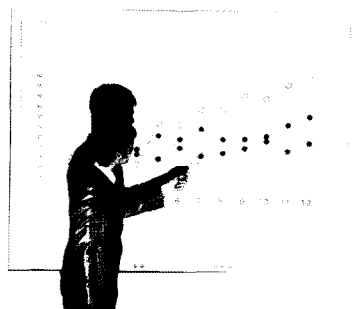
* (특허전략전문가) 변리사, 대기업 연구원 및 기업 특허부서장 출신으로 R&D 경력과 IP(지식재산) 경력을 동시에 보유한 전문가

이수원 특허청장과 하우송 경상대 총장은 지난 8월 2일 경상대학교(경남 진주 소재)에서 대학 연구단의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 제시를 위한 국가 R&D 특허전략전문가 파견사업 최종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발표회는 경상대 나노구조 생체에너지 융합연구단에 특허전략전문가가 파견되어 연구개발 시작단계부터 연구결과의 사업화까지 특허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지원하여, 전략적 기술이전을 통한 고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대학의 R&D 수행 모델 발표 및 향후 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수원 특허청장은 "대학에 특성화

된 특허전략 지원을 통해 국제원천특허 창출 등의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고 있어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할 예정이며, 이번 발표회가 대학의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이 확산 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국내 대학 중 디자인권 최다 보유

국내 대학 중 디자인 권리화에 가장 적극적인 대학은 서울대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서대학교, 공주대학교가 뒤를 이었다.

이는 특허청이 대학 법인의 디자인권 등록 및 최근 5년('06~'10년)간 출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서 나왔다.

서울대는 139건의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1위를 차지하였고, 한서대와 공주대는 각각 115건, 88건의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5년('06~'10년) 서울대는 113건의 디자인을 출원하였고 한서대와 공주대는 각각 112건과 109건의 디자인을 출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디자인에 강한 대학으로 알려진 국민대와 홍익대는 각각 30건과 19건의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디자인 출원은 각각 56건, 37건이었다.

찾아가는 전자출원 교육, 중소기업에 인기 급상승!

특허청이 제공하는 찾아가는 전자출

디자인 다등록 대학 현황(2010년말 기준) (소멸건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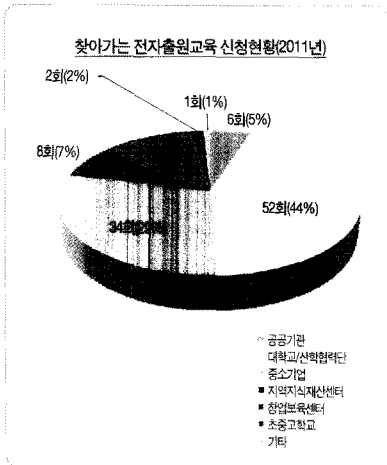
대학별	서울대	한서대	공주대	서울여대	원광대	강원대	군산대	한국산업기술대	경상대	국민대
등록건수	139	115	88	58	54	54	36	33	35	30

총익대 19건

디자인 다출원 대학 현황(2006~2010) => 5년간 출원 합산임

년도\대학	서울대	한서대	공주대	청주대	덕성여대	서울여대	원광대	한국산업기술대	국민대
출원건수	113	112	109	81	72	70	70	50	56

총익대 37건



원 교육서비스가 중소기업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 하반기 교육 수요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교육신청은 지난해 대비 75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2007년부터 중소기업, 대학 등의 특허출원 능력과 특허정보 활용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전자출원 교육을 무료로 실시해 왔다.

그동안 서울지역은 물론 지방소재의 소상공인지원센터, 지역지식재산센터, 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 등 누구라도 요청하면 어디든지 방문하여 총 300회 이상 수요자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특히 올해 하반기 수요조사에서는 업무시간외 교육수강을 희망하는 기관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추가 수요를 파악하여 9월부터 야간과 주말에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회적 기업에 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한다

특허청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된 “사회적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품의 매출 증대와 판로확대를 위하여 브랜드 및 디자인의 개발과 권리화 지원에 나서기로 하였다.

2011년 6월말 현재 고용노동부에 인증된 사회적 기업은 532개, 예비 사회적 기업은 1,005개에 이른다. 이 중 사회적 기업 5곳을 선발하여 올해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을 통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확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 개발 및 마케팅 등에 필요한 브랜드·디자인을 지원함으로

써 사회적 기업이 매출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동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 기업의 임직원들이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식재산경영’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012년부터는 특허청에서 지정한 지식재산 종합지원기관인 전국 32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하여 브랜드·디자인뿐만 아니라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전반에 관한 전문상담과 이를 바탕으로 한 권리화, 사업화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지원규모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 기업 중 경쟁력이 있는 기업은 글로벌 IP 스타기업으로 선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할 계획이다.

1)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 받은 지를 말한다.”

KIPO NEWS

국제특허분쟁 예측 및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한 눈에

기업이 자사의 국제특허분쟁 연루 가능성 및 대응방향을 알 수 있는 정보 검색서비스가 제공된다.

최근 스마트폰, LED 등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에서 특허분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국제특허분쟁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특허청은 기업 맞춤형 국제특허분쟁 정보 검색서비스(이하, 분쟁정보 내비게이션)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를 통해 금년 10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제특허분쟁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은 분쟁 관련 정보 부족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특허청은 기업의 분쟁 예측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분쟁으로 인한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쟁정보 내비게이션을 제공하게 되었다.

분쟁정보 내비게이션은 국제특허분쟁 예측 및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개별 기업이 처한 상황에 맞추어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한다. 즉, 기업이 자사 제품, 진출 국가, 관련 특허 등 자사의 정보를 입력하면 그 조건에 부합하는 다양한 분쟁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 주요 제공 정보 >

- ① 분쟁동향·특허관리회사(NPE) 활동현황·소송사례 분석자료
- ② 해외 지재권 관련 제도 및 해외 진출기업 피해·대응 사례
- ③ 해외 지재권 전문가 현황
- ④ 주요 이슈 심층분석 보고서 등

특히 시스템에 위키(wiki) 개념을 도입하여 오류가 있거나 보강이 필요한 콘텐츠는 사용자가 직접 수정할 수 있게 된다.

기업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간단한 검색으로써 분쟁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의 정보탐색비용 절감 및 분쟁 대비능력 향상이 기대된다.

구분	내용
입력정보	· 업종(자동차 부품, 의류, 전자 등) · 진출형태(수출, 위탁생산, 법인설립, R&D 센터 설립) · 진출국가(미국, 중국, EU 등)를 입력
출력정보	· 입력조건에 가장 부합한 분쟁 현황, 판례, 법령정보, 대응방안 등

제공 특허청

[수출기업 지재권 분쟁 내비게이션 시스템 개요]

